

소나무 재선충 확산 속 지자체 방제 미흡

여수·순천·광양 등 4100여그루 피해... 담양서도 발생 정부·지자체 방제예산 줄어 감염 나무 신속 제거 차질

소나무 재선충병이 전남 산림도 위협하고 있다. 거제·통영을 중심으로 하는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인접한 여수·순천·광양 지역에 잇따라 발생하면서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예년에 비해 재선충병이 확산하는 상황에도, 정부의 방제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 실정을 모른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 2월 말까지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은 여수(1758그루), 광양

(1631그루), 순천(701그루) 등 모두 4162그루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까지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4392그루)에 견줘 다소 줄어들었지만 2년 전인 지난 2017년 4월까지 발생한 재선충병 피해목(3871그루)에 비하면 7.5%(291그루) 늘어났다.

전국에서 발생한 피해목(69만그루)의 0.6% 수준이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수지역을 중심으로 감염돼 말라죽는 소나무들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그동안 발

생하지 않았던 담양에서도 첫 감염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전남도 등은 기온이 오르면 재선충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가 성충이 돼 소나무 바깥으로 나가는 만큼 미리 최대한 감염된 나무를 제거하는 데 힘을 쏟고 있지만 버거운 현실이다.

산에 올라 감염된 나무를 베어내 짊어지고 내려와야 하는데 힘든 업무라 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고 경사가 가팔라 접근이 어려운 곳도 많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이 때문인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베어내 치운 감염목도 2595그루(2019년 2월 말 기준)에 그치고 있다.

방제 관련 예산도 줄었다. 전남도는 지난해만 해도 방제 예산 38억2300만원을

책정했지만 올해는 20억18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산림청이 내려준 국비가 28억900만원(2018년)에서 13억5000만원(2019년)으로 줄면서 매칭으로 편성한 도비(3억1300만원→2억1500만원)와 시·군비(7억1000만원→4억5300만원)도 덩달아 줄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들을 신속하게 제거, 확산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에 의해 확산, 감염된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산림병해충으로, 국내에서는 부산 금정산(1988년)에서 처음 확인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교육청, 친일 잔재 전수조사 착수

학교 상징·교가 등 한달동안

전남도교육청이 학교 현장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역사 전공 교수, 역사·음악 교원, 민족문제연구소 등 전문가 18명으로 꾸려진 테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4월 한달간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친일 잔재 전수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대상은 학교 상징(교훈·교목 등), 교가, 석물, 학생생활 규정 등이다. 도교육청은 친일 음악가가 작사·작곡한 교가 현황을 파악하고,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작곡·편곡을 지원할 예정이다.

친일 관련 석물(표지석, 흉상 등) 존

치 여부를 조사한 뒤 교육적 활용 및 이전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의 역점 공약인 조직문화 개선과 연계해 훈화·치사 등 훈도 문화, 두발·복장 검사 등 전반적인 학내 일제 잔재 문화도 청산한다는 방침 아래 학생생활 규정 내용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한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4·11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학교 내 친일 잔재 청산 작업은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역사교육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1000만원 수수 의혹' 우윤근 대사 무혐의

취임알선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우윤근(61) 주러시아 대사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은 2015년 한 차례 언론에 보도된 이후 문태오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우 대사 등 여권 인사의 비위 첩보를 수집하다 청와대 눈 밖에 났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검찰은 처음 의혹이 제기된 지 4년 만에 수사를 벌였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우 대사가 사기,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지난 5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 대사가 취임을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우 대사는 국회의원이던 2009년 4월 부동산개발업체 C사 대표 장모 씨에게 "조카를 포스코건설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우 대사의 측근이 감찰청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할 로비자금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았고, 이중 1억원이 우 대사에겐 전달됐다는 의혹(제삼자 뇌물수수 혐의) 대해서도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무혐의 처분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우 대사를 소환조사했다.



전일빌딩 리모델링 공사 현장 8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리모델링 공사 관계자가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계를 점검하고 있다. 전일빌딩 내부와 외벽에서는 5·18 당시 헬기기총 소사 총탄 흔적이 200여개 발견됐다. 광주시는 총탄 흔적을 완전 보존한다는 방침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시민단체,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포스코 고발

시민단체들이 포스코가 (광양)제철소 정비·제기동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배출했다(광주일보 2019년 4월 4일자 6면)며 8일 포스코를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포스코에 대한 고발장을 이날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포스코가 운영 중인 고로의 '브리더'라는 긴급 밸브를 통해 유독가스와 분진이 주기적으로 무단 배출된 실태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났다"며 "포스코는 그동안 환경부로부터 고로의 브리더를 비상시에만 사용하도록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았고 안전을 핑계로 수도 없이 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해왔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포스코가 운영 중인 제철소 고로의 긴급 밸브에서 장기간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해왔지만, 지금까지 오염물질 종류와 배출량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제철소 오염물질 무단배출 실태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시행해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곡성·남원 등 산불 4건 가해자 현장서 즉시 검거

산림청은 "지난달 31일 곡성, 전북 남원 등 전국에서 산불 4건의 가해자를 현장에서 즉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산림청은 해당 가해자들을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도 묻는다.

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42%로,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모두 700명이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73만원이며, 최고 징역 4년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다.

산림청은 산불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고자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도환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산불가해자는 엄중히 처벌받고 피해보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되므로 불씨 취급 시 각별한 주의와 산불예방에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SNS서 만난 친구 감금·금품 빼앗은 20대 3명 입건

광주동부경찰은 8일 SNS에서 만난 친구를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최모(20)씨 등 3명을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6일 새벽 0시20분께 광주시 동구 광산동 한 카페에서 강모(20)씨를 렌터카에 강제로 태워 지역 내 저수지·모텔 등지에 데리고 다니며 22시간 동안 감금하고 때린 혐의다.

이들은 강씨의 휴대전화 2대와 신분증이 들어있는 35만원 상당의 지갑을 빼앗

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또래 친구 사이로 SNS(페이스북)에서 만난 강씨의 명의로 고액 대출을 받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에서 "최근 함께 술을 마신 강씨와 어울려 다니느라 일을 하지 못해 그 돈을 받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김모(20)씨를 추적하는 한편, 최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봄나들이 나섰다가 남의 텃밭서 봄나물 캔 여성들 '덜미'

봄나들이 나섰다가 남의 텃밭서 봄나물 캔 여성들 '덜미' 해 나들이에 나선 60대 여성들이 남의 텃밭에 들어가 봄나물을 캐다가 나란히 경찰서행.

○8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A씨 등 60대 여성 4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께 광주시 남구 B(여·69)씨의 농원 텃밭에 무단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과도로 2만원 상당의 썩·냉이 등

봄나물을 캐다 듣기는 바람에 도주했다는 것.

○"여자 4명이 자신의 밭에서 나물을 캐다 도망갔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 끝에 이들을 붙잡았는데, 경찰에서 A씨 등은 "남의 텃밭에서 봄나물을 캔 것이 큰 죄 인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

완도전북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공모

완도전북주식회사는 전북 등 수산식품의 수출진흥 및 전북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완도전북주식회사의 미래를 열어갈 역량을 갖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 공모분야 및 자격요건

공모직위	직급	모집인원	임 기	자격요건 등
이사	대표이사	1명	3년(연임가능)	회사 및 완도군청 홈페이지 "완도전북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공모" 참조
	사내 이사	생산·관리 분야 1명	3년(연임가능)	
	영업·마케팅 분야 1명			
- 전형절차 공모→서류 및 면접심사→합격자 선정→주총 결의

공모 및 원서 접수기간	구 분	일 시	비 고
2019. 3. 28(목) ~ 2019. 4. 16(화) 18:00시 限	서류전형	2019년 4월 중	자체 심사기준
	면접전형	2019년 4월 중	서류합격자에 한해 일시 및 장소 개별통보
	합격자 선발	2019년 4월 중	회사 홈페이지 공지
	주총의결 후 합격자 확정	2019년 5월 중 (예정)	개별통보
- 제출서류 회사 및 완도군청 홈페이지 "완도전북(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공모" 참조
- 제출방법 우편, 방문 및 이메일 접수
가. 우 편 : 전남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 8길11, 완도전북(주) (임원추천위원회)
나. E-mail : abalonekr0401@naver.com
- 기 타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회사 및 완도군청 홈페이지 "완도전북(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공모" 참조바람

2019년 3월 28일
완도전북주식회사 임원추천위원회